

피아노 104대의 감동...신안 '1004섬 예술로 날다'

신안 섬 최초 문화의 달 행사...내달 20~22일 자은도 뮤지엄파크

임동창 총감독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 마련...판소리 협연 무대도
줄타기·댄스 경연대회·푸드트럭·포럼·사진전·어린이 놀이터 등 다채

전사섬 신안에서 섬 최초로 '문화의 달' 행사가 펼쳐진다. 신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군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1004섬 예술로 날다'를 주제로 다음달 20일부터 사흘간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예술로, 미래로, 바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섬마을의 생태와 다양성, 문화를 녹여낸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전야제와 개막식이 열리는 뮤지엄파크 특설무대 일원은 행사 기간 내내 '예술'의 향연으로 채워진다.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임동창 총감독은 행사 첫째 날 전야제에서 100+4(104대)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서남해안 도서지역 축제 문화인 '산다이'에서 영감을 얻은 작곡가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를 시작으로 바이엘, 찬송가, 클래식, 영화 OST, 대중가요를 재해석한 연주곡을 104명의 수준급 피아니스트와 협연한다.

뮤지엄파크 이벤트광장에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과 먼 거리를 표류했던 신안 우이도 출신 흥어장수 문순득의 경험담을 엮은 '표해시말'(漂海始末·정약전)을 극화한 공연도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100+4 피아노의 신안아리랑 공연과 압해동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비금중학교 뽀뽀기 강강술래, 무형문화재 줄타기 예능 보유자 김대균과 제자들의 줄타기 등이 예정돼 있다.

무형문화재 심정가 보유자 신영희, 수궁가 보유자 김수연을 비롯한 8인의 명창 판소리 등이 피아노와 어우러진다.

판소리 무대 이후에는 역동적인 흥이 휘몰아치는 연주곡 '칠채휘모리'를 다양한 국악 서양 악기들의 협주로 선보인다.

마지막 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여 개 댄스팀의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경연대회와 100+4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나도 피아니스트' 무대가 마련된다.

예술섬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학술행사와 함께 신안의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푸드트럭, 1004 로컬푸드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첫째 날부터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이어지는 '신



신안군은 '1004섬 예술로 날다'를 주제로 다음달 20일부터 사흘간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은도. <신안군 제공>

안의 미식'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조리 시설을 갖춘 특급 푸드트럭과 오너 셰프들이 제철 로컬푸드를 선보인다.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섬 문화 다양성을 소개하는 포럼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도서국들의 독특하고 진귀한 섬 문

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 부대 행사로 둔장마을미술관에서 노순택 작가의 '신안, 섬의 삶, 삶의 섬' 사진전이 10월 한 달 동안 열린다.

주 무대 일원에서는 '제1회 신안 김밥 페스타'가 사흘간 열리는데, 김밥 쿠키쇼·피크닉존·농수 특산물 전시 판매·어린이 놀이터 운영 등을 만날

수 있다. 임동창 행사 총감독은 "가을날 신안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축제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라며 "피아노와 섬, 그리고 섬 문화를 통해 신안의 잠재력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첫 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형 대중교통 구축' 시민 공론화위 출범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구성

'목포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

목포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교통, 회계,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관·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시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목포시는 공개 모집과 시의회 추천 등을 통해 위원을 위촉했다.

초대 위원장은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조연주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선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두 차례의 사전 만남을

갖고 대중교통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목포시는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운영체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목포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 ▲노선 공영화 ▲경쟁·균형이 있는 운영체계 확립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 설문조사, 의견 선정,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직결되는 교통 정책으로, 노선체계 개편부터 운영체계 확립까지 최선의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바이오 활성화' 협약

완도군이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지난 8일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력을 추진키로 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자원 전문 연구·전사·교육 기관으로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과 산업계 지원 등 해양생물자원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연구 협력 ▲해양바이오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 ▲해양바이오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시 프로그램 공동개발·활용 등을 진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다양한 해양자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연구기술이 연계되면 완도의 해양바이오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며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신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해 우수한 해양바이오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난 8일 신우철(오른쪽) 완도군수와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지난 5일 박우량 신안군수와 미스코리아 본선 참가자 52명이 자은도 양산 해변에서 신안군 피아노 축제 홍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미스코리아 본선 참가자들 "오늘은 신안 홍보대사"

52명 2주간 자은도서 합숙

신안군은 제67회 미스코리아 본선 참가자 52명이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월드리조트에서 합숙을 시작하고 신안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스코리아 대회는 1957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67년 역사를 가진 외면의 아름다움과 지성 등 고품격 미의 위상을 겨루는 대회로 당선된 미스코리아

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다.

지난 5일 박우량 군수는 미스코리아 본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남이 가지 않는 길(The one & only)'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박 군수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신안군 지역의 특성을 감정으로 전환해 136명이 사는 퍼플섬에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게 했으며, 바람과 햇빛과 바닷물이 소동이 되는 햇빛연금을 지금해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 절벽 대응에 기여한 성과로

'2023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에도 선정됐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1004섬 신안으로 꿈을 섬에 입고 있다"고 말했다.

52명의 미스코리아 본선 참가자들은 14일간의 합숙 기간 퍼플섬과 1004뮤지엄파크 등 신안군의 관광명소 홍보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신안만의 특색을 갖춘 농특산물 및 별미 음식점, 지역의 관광, 문화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은 내년 6월 영암읍 일대에 '달맞이 공원(왼쪽)을 개장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교통지구' 도시개발을 마무리해 영암읍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영암읍 활성화 나선다

2025년까지 교통지구 문화·예술·교육·주거지 조성
동무지구 '달맞이 공원', 100m 경관 보도교 등 추진

영암군이 '교통지구' 개발과 '달맞이 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영암읍 활성화를 나선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 시가지는 중심으로 한 '교통지구 도시개발'을 오는 2025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통지구 도시개발은 영암읍 교통리 체육관 인근 18만9602㎡에 문화·예술·교육시설과 주거지·상업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35억원이 들어간다.

영암군은 지난 2019년 수요분석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이듬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교통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설명했다.

올해 4월에는 전남도로부턴 실시계획 인가를 받

고 같은 해 6월 전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쳤다.

이달 현재 조달청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문예회관과 도서관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기획과 투자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영암군은 단독주택 부지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활력타운 영암형 청년주택사업' 공모도 준비하고 있다.

영암읍 동무지구 일대에는 '달맞이 공원'이 조성된다.

동무지구와 영무정, 영암경찰서 옆 영암읍성을 공중에서 잇는 100m 길이 경관 보도교가 핵심 시

설이다. 월출산 달을 본뜬 조형물과 산책로, 바닥분수, 작은 공원 등도 달맞이 공원의 즐길 거리가.

영암군은 영암읍의 상징과 같은 옛 영암읍성을 복원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 2019년 달맞이 공원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확정된 뒤 지난해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지난해 6월부터 착공했다. 이달 현재 경관 보도교 기초공사와 영암읍성 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영암군은 내년 6월 달맞이 공원 문을 열 계획을 세웠다.

영암군 관계자는 "교통지구 개발과 달맞이 공원 조성, 두 사업은 민선 8기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점 사업"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환 기자 jbh@kwangju.co.kr